

## 나와 너, 우리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자립지원센터 '내비두'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함께 & 따로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내비두에서 진행하는 재무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모습.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은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립이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지지와 응원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청년들은 무엇이든 오롯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동안 자립 준비를 시작하지만 시설을 나온 후에는 비로소 혼자가 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받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부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경기자립지원센터 내비두(이하 내비두) 김재훈 대표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에

선정된 후에는 경기 의정부 지역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56명을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함께 & 따로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청년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박영민(가명) 씨는 시설 퇴소 후 절제되지 않는 생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고 급기야 몇 달씩 은둔생활을 하며 지내기도 했다. 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내비두의 생활습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오래 참여한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멘티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과 격려를 해주며 생활습관을 바로 잡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내비두는



일경험 사업 중 하나인 공방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및 자립지원사업장에서 일하는 자립준비청년.

2016년부터 세어하우스 ‘한하우스’를 운영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조모임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무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호응도 뜨겁다. 월 1회씩 총 10개월 과정으로 개인별 맞춤형 재무 설계를 통해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자들은 개인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대로 쓰기, 합리적으로 쓰기, 인내하기, 가치 있게 쓰기의 4단계 교육과정을 수강하며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른다. 10개월간 재무역량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매월 소정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수업과정을 통해 경제관념을 바로 잡은 청년들이 실제 지원금을 토대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나에게 맞는 적성과 능력을 발견하다

직업진로역량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 여러 기업들의 문을 두드린 결과 40여 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에는 직업경험 교육을 의뢰하며 소정의 위탁 교육비를 지급한다. 기업이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도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교육을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창업에도 관

심을 기울여 청년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예비 마을기업을 설립해 석고방향제, 레진아트 등 수공예품을 제조해 판매 중이다. 아직 큰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경험은 물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라서 괜찮아요

이성은 팀장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지지해준다면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청년들의 내재된 힘을 이끄는 것이 바로 내비두의 역할이다. “‘함께 & 따로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동복지시설을 나온 청년들이 사업의 대상자이자 진행자가 되어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만 그 원동력은 결국 청년 스스로가 찾는 것이죠. 식상한 말 같지만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진리를 이 사업을 통해 매순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 크고 따뜻한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금도 내비두는 청년들과 힘차게 의기투합 중이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뛰는 런닝 메이트가 되어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글 권주희 작가